

4월 실국장회의 모두말씀

4.7.(목) 10:30 온나라 PC영상회의

□ 당선인 간담회 내용 공유

어제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였음.
그 자리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이자 인천시장으로서 몇 가지 건의드렸음.

우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건의드렸음.

당선인께서 인천시민의 숙원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에 대해
임기 내 해결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오신 만큼
수도권 매립지 종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을
선진화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음.

또한 강화·옹진 등 접경도서지역과 인천의 낙후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청드렸음.

특히, 강화와 옹진은 수도권 규제와 함께
접경지역 규제 등 다양하고 중복된 규제를 받고 있음.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가 강화·옹진을 포함하여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할 예정임.

정부 한 쪽에서는 액셀레이터를 밟고,
다른 한 쪽에서는 브레이크를 함께 밟다보면
정부예산은 낭비되고 정책효과는 반감되며, 주민불만은 높아질 것임.

이처럼 정부 정책 간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강화·옹진 지역에 대한 확실한 수도권규제 폐지와 함께,
더 나아가 인천 전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실천해주시기를 요청드렸음.

그 외에도 지방재정이 국가사업 매칭에 급급하지 않고
균형발전과 주민밀착형 서비스 제공 등 본연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역할 재조정과 지방재정 확충을 건의하였음.

□ 최근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

한편, 인천시가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았음.

우리 시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22년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종합평가 결과 SA등급을 받았음.

또한 권위 있는 한국일보·한국정보사회학회 공동주관

지자체 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 시가 특·광역시 중에서 종합순위 1위를 달성*함.

* 지속적인 순위상승: 2022년 1위 ← 2021년 3위 ← 2020년 4위

이 모든 것은 우리 7천명의 인천시 공직자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이 응원한 결과임.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음.

□ 지방선거 관련 당부사항

지방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왔음.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정치적 이벤트가 정책의 대 전환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나, 행정의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임.

저도 작년 7월 인천 독립 40년 행사에서

인천의 2030 미래비전을 밝힌 바 있음.

우리 인천은 앞으로 10년 사이 경제와 환경이 가장 크게 변화한

경제특별시·환경특별시로 도약하고 부산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될 것이라 했음.

변화의 시기에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인천시 7천명의 공직자가 부단히 노력해야할 것임.

벤치마킹, 시민들과의 현장소통강화, 정책연구와 개발, 치열한 고민과 혁신 등

공직자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더 나은 인천을 위해

말은 바 충실히 업무에 임해주기 바람.

4월 한 달도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감사함.